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수민 의혹' 정면돌파

이상돈 진상조사단장 "신생정당의 실수... 검찰 기소하면 망신"

김수민 의원의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범조인들로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가 이번 사태에 미치는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최고위원은 1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당할 거라고 본다.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테스크포스(TF)'가 리베이트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브랜드호텔의 통장 복사본을 받아봤는데, 계좌에 2억 원이 그대로 있었다. 체크카드를 준 것도 그 사람이 그냥 갖고 있어서 외부로 흘러간 건 없다"고 말했다. 홍보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업체의 불찰로 계약을 구두로 했다. 실수이고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당 진상조사단에 속한 김경진 의원도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기회 수사는 아니지만, 선관위가 계좌추적이나 사용자 확인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선불리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배경과 관련, "시작은 기획

수사가 아니었지만 수사 진행이 공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추정컨대 광고를 받지 못했던 회사에서 선관위, 검찰, 모든 언론사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서를 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당이 비례대표로 발탁된 김의원이 소속된 회사에 공보물 기획업무를 맡긴 것에 대해서는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당직자 등 관련자들과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돈이 실제로 국민의당에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 사실 관계 파악이 끝나면 대로 김수민·박선숙 의원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의혹 파문이 비례대표 공천 적격성 여부로 불뚱이 튀고 있어 국민의당 내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당장 안철수 대표는 물론 국민의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문의 1차 분기점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안 대표에게 상황 반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3당 내달 6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청문회 개최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6월 1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 같이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회 본회의를 다음달 5일이 아닌 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일 오전 10시 새누리당을 시작으로 21일 더민주, 23일 국민의당이 차례로 진행키로 했다. 각 상임위별 부처 업무보고는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번 야 3당이 요구한 청문회 4개(가습기살균제·정운호게이트·어버이연합·농민 백남기씨)하고, 더민주가 요구한 사별관 청문회와 관련해 총 5개에 대해 얘기했다"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의역 사고 청문회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정식 요청하지 않았다"며 "구의역은 서울시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국정감사 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은 15일 다시 만나 청문회 실시 여부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사무총장에 개헌론자 우윤근 前의원

의장 비서실장엔 김교홍 前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광양의 우윤근(사진) 전 의원이 장관급인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14일 내정됐다.

우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활동을 뒷받침하며 국회 살림살이를 총괄하게 된다. 특히 우 전 의원이 여의도 내에서 대표적 개헌론자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정 의장이 전날 국회 개원사에서 밝힌 개헌론이 본격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사무총장에 우 전 의원, 비서실장에 김교홍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에는 언론인 출신 등을 놓고 인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우 내정자에 대해 "원내대표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며 "우 내정자는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 의회주의자로,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출신 출신의 우 전 의원은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분류된다. 17대~19대 내리 3선을 지내며 국회 법사위원장, 정책위의장 등을 거쳐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나, 지난 4·13 총선에서 낙선했다.

우 전 의원은 애초 오는 7일 미국으로 출국, 1년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방문 연구원을 지낼 예정이었으나 이번 인선으로 출국을 취소했다.

우 전 의원 카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우 전 의원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는 점 등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 의장과 친노·친문 진영 간 '전략적 제휴'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장 비서실장에 내정된 김 전 의원은 인천 서·강화갑에서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인천 정부부시장을 역임한 정세균 직계로 분류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행료 85% 보전서 운영비 보전으로 '짠물 경영' 댄 유지·관리 부실 우려도

광주시-맥쿼리 제2순환도로 1구간 MRG 폐지 합의 내용과 문제점

광주시가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비 보장방식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이어진 재정 지원 방식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자 도로' 운영비 보장 방식을 놓고 운영사와 마찰을 빚어온 만큼 이번 광주시와 광주 제2순환도로 간 합의에 따라 향후 전국 지자체들의 대응 방식도 주목된다.

광주시가 이번에 제2순환도로 제1구간 주주인 맥쿼리 측과 합의한 주요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다.

MRG는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 미달시 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을 보전 받는 것으로, 맥쿼리가 투자한 전국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SOC)에 적용된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통행량은 예상치의 44%에 그치면서 재정보전액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시가 부담한 액수만 2041억원에 달했다.

광주시는 이처럼 재정 압박 요인이 커지자 맥쿼리 측에 수입보장 조건 완화 등을 요청했으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2011년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리면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법정 소송 등 '강력 대응'을 해오던 광주

최대주주 변경 없이 전국 첫 합의

운영비 산출 놓고 다툼 일 수도

시가 '합의'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최근 부산시 등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가 맥쿼리 측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송 보다는 실리'를 찾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실무협상팀을 꾸려 잠정 합의를 마련하고 변호사, 회계사,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의 검증용 거쳐 맥쿼리 측과 추가협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맥쿼리측은 투자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투자자 반발과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당초 협상에 부정적이었으나 줄기찬 물밑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가 MRG적용을 놓고 맥쿼리와 소송전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는 가운데 광주시의 MRG폐지 합의는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우면산 터널 운영과 관련해 MRG를 없애고 통행료를 2033년까지 동결하는 내용으로 우면산터널프라이데이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직원공제회 지

분이 15%에서 49%로 확대돼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지분 36%를 보유한 맥쿼리는 제2주주로 물러났다.

반면 광주 제2순환도로 사례는 최대 주주 변경 없이 MRG폐지 협상이 성사된 첫 사례인 셈이다. 따라서 맥쿼리와 분쟁중인 다른 자치단체들에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맥쿼리와 이번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12년간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1200억 원 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려되는 문제점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에 따라 변경된 투자비 보전방식이 운영수입이 실제 사업운영비에 미달할 만큼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어서 운영비를 얼마로 책정할 지가 관심사기 때문이다.

실제 운영비와 이를 근거로 한 투자비 보전 규모 산출 과정에서 시와 맥쿼리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운영비 최소화를 통한 '짠물 경영'이 현실화될 경우 유지보수 부실과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도 우려된다.

한편, 광주 제2순환도로 3개 구간 중 현재 3-1구간(효덕~풍암)은 통행량이 예상치의 60%에 그치면서 매년 67억원의 재정 지원금을 시가 부담하고 있지만, 4구간(유덕~산월)은 통행량이 85%를 넘어서면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규환

일본여행 이번이 기회다 !!!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야마구치

- ▶ [한정특가/선착순 8명] 가족과 함께 떠나는 고급 별장 온천여행 4일 ₩299,000~
- ▶ [폭격] 야마구치 전통로칸 온천 여행 4일 ₩539,000~
- ▶ [실속] 기타큐슈 온천여행 + 후쿠오카 1급 4일 ₩499,000~
- ▶ [부관철회/특가] 북큐슈 미야지마,이와쿠니 3박4일 ₩399,000~

항공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후쿠오카 **팬스타로 떠나는 오사카, 나라, 교토**

- ▶ [특가] 에어부산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2박 3일 ₩599,000~
- ▶ [팬스타] 오사카, 나라, 교토 4박 5일 ₩599,000~

포함: 왕복 선박항공료, 유류세, 부두세&공항세,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식사, 가이드비 불포함: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광주-부산 국내 수송비

2016년 무안출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여행!! **출발일 7/28, 8/1, 8/6, 8/11**

울란바토르, 테를지	3박5일 ₩1,499,000	출발일: 7/28, 8/11	트래킹	3박5일 ₩1,499,000	출발일: 7/28, 8/11
	4박6일 ₩1,649,000	출발일: 8/1		4박6일 ₩1,599,000	출발일: 8/1
	4박6일 ₩1,599,000	출발일: 8/6		4박6일 ₩1,549,000	출발일: 8/6

불포함: 싱글차지, 호텔(2인실)4인실(기존),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발맞치기 봉사료

민족의 영산 백두산!!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FM-상해항공]

- ▶ 출발일 7/13 ~ 8/24(수, 토 출발)
- ▶ 북파·웅정·도문 4일 [실속] ₩1,140,000~ [폭격] ₩1,250,000~
-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250,000~ [폭격] ₩1,340,000~
- ▶ 북파·서파·웅정·도문 5일 [실속] ₩1,290,000~ [폭격] ₩1,390,000~

불포함: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TW-티웨이항공]

- ▶ 출발일 7/20~8/27(수, 토 출발)
- ▶ 북파·웅정·도문 4일 [실속] ₩1,040,000~ [폭격] ₩1,140,000~
-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150,000~ [폭격] ₩1,240,000~
- ▶ 북파·서파·웅정·도문 5일 [실속] ₩1,190,000~ [폭격] ₩1,290,000~

불포함: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 연산, 태향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개인경비, 매니저,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개인경비, 매니저,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89,000~
-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55,000~

무안 ↔ 북해도(삿포로) 전세기 취항

- ▶ 출발일 7/31, 8/4, 8/8, 8/12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5일 ₩1,599,000~
- ▶ 삿포로 1일 자유일정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후라노, 비에이 5일 ₩1,699,000~
- ▶ 노보리베츠, 도야, 오타루, 삿포로, 하코다테, 후라노 5일 ₩1,799,000~

※ 3대 게요리 포함 불포함: 개인경비, 기타매니저, 기사&가이드 경비(¥4,000)/인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렇다한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공동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해외상품:1명/국내상품 5인/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지역 ▶ 시기 요건은 항공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 가입 ▶ 예약시 계약서(회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